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4년도 표어 ◎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사도적 교회

◎ 생활지침 ◎

1. 거듭난 사람
2. 성숙한 신자
3.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517-7651~5 팩스/512-1225

맥추감사절 메시지

UR파동으로 농촌을 떠나는 이들이 늘어간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흙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토불이(身土不二)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94 맥추감사절을 맞이하여 교회는 맥추절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 교회의 재정 확보를 위한 수단 정도로 전락되어 버린 오늘의 맥추절에 대해서인들은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3대 절기 중 하나로 오랜 역사와 전통으로 전래된 매우 중요한 날이다. 칠칠절, 오순절, 초실절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날은 무교절로부터 50일 즉, 출애굽 후 50일째 되는 날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날도 된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 즉, 성령이 강림하신 날로 교회가 시작한 날이기도 하다. 이같이 중요한 날에 밀과 보리를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께 첫곡식단을 들고 나와 감사의 예배를 드렸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을 성회로 공포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과만 교제하는 날로 삼았다.

금년 맥추절은 우리에게 더욱 감회가 깊다. 몇주 전까지만 해도 북한의 핵사찰 거부로 전운이 감돌던 이 땅이 아니던가. 우리는 흥제작전을 선포하고 조국을 위해 새벽마다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이 땅에 올해에도 연속되는 풍년의 소식도 들려 주셨으니 크게 감사하자.

편식은 건강의 적이라고 한다.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싫다 좋다

감사로 좌절을 이겨야



우리가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며
받은 바 모든 것이 과분하지 않은가.
하나님은 우리를 후대하셨다.



이종윤 목사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언제나 감사하며 받아들이고 또 감사를 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므로 감사한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 해서 그것이 반드시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요 그것이 반드시 내가 싫어하는 것이라 해서 그것이 또 한 나를 해롭게 하는 것도 아니라도 리어 그와 반대일 경우도 허다하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반드시 내게 유익할 줄로 믿는 이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우리가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며 받은 바 모든 것이 내게 과분하지 않은가. 생각할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후대하셨다.

나 자신의 행적에 비해 사실 이 모든 것은 내게 과분할 뿐이다. UR문제로 좌절만 할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는 농촌 재건의 계기를 맥추감사절을 기해 마련해야 한다. 누구를 원망하거나 시비하기 보다는 이제는 주어진 환경과 처지를 오히려 도약과 재건의 기회로 삼아 감사하는 절기로 삼아야 한다.

감사하는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축복사건으로 변화될 것이며 모든 날

들이 찬송으로 채워질 것이고 맑은 땅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성지가 되고 성민으로 변화될 것이다.

밀, 보리 추수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전천후 감사 속에 살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일진대 “주님! 이 절기에 범사가 복되도록 범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오늘 I, II, III 예배에 성찬식

저녁에는 맥추감사 찬양예배로

오늘 예배는 맥추감사절 예배로 드린다. '94년의 반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성찬예식을 I, II, III부 예배시에 거행한다.

또한 저녁 5시에는 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어린이들이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였다.

지난 주일 공동의회 결과

권사 20명 피택, 70세 이상 후보자 전원 당선

지난 주일 공동의회에서 20명의 권사가 선출되었다.

박경희, 우선자, 이경희, 전정순, 윤문자, 최 완, 심재을, 김윤자, 박금옥, 이점숙, 이부자, 김인순, 최인영, 김경희, 김종리, 홍재식, 윤영자, 최영순, 김순자, 고후덕

70세 이상 권사 투표 결과 당선자는 다음과 같다.

박청강, 정복숙, 김희순, 조옥순

이옥순, 김정현, 차복녀, 김인식, 송갑순, 최순애, 정복순, 김진영, 김남순

맥추절의 묵상

맥추절에 드리는 감사와 찬양

임진태 (목사·1,2교구 담당·새가족부 지도)

맥추절은 이름 그대로 수확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이 맥추절은 칠칠절, 초실절, 오순절로도 불립니다. 유다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받은 아빔월 즉 유월절로부터 칠주를 지난 제 오십일째라 해서 칠칠절(신16:10) 혹은 오순절(레23:15)이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해방 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헤매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후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날이었기 때문에 초실절(민28:26)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맥추절은 유대인들에게 깊은 의미가 있는 기쁜 절기였으며 초대받은 가난한 자들, 나그네, 레위인 등과 공동식사를 나누는 축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축제를 살펴 보면, 우리가 왜 맥추절에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맥추절의 감사와 찬양은 우리의 신앙고백입니다. 이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상기시키는 감동적이고 고백적인 날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기점으로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미래로 나아가는 순례자의 길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고백하는 역사적 날입니다.

둘째, 우리의 진실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된 것만해도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광야길 40년을 지켜 주셨으며 약속의 땅에서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감사의 찬송인 것입니다. 물질 만능의 시대에 살면서 맥추절에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주님만이 나의 주가 된다는 위대한 고백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귀한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진실된 감사를 드리는 사람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를 드리겠다는 결심을 외적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공동체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맥추절에 드리는 제물 가운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떡 두덩이로 드리는 요제입니다(레23:17). 이 떡은 누룩을 넣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제단에 오르지 못하였고 제사장들에 의해 소비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에 의해 맺어진 하나의 공동체임을 나타내면서 형제들간의 책임의식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는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진정으로 돌아볼 때 이 날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는 오늘, 우리 모두는 벅찬 감격을 가슴에 안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을 감사하면서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새 일꾼의 감사와 각오

나의 나 된 것 하나님 은혜이기에

이부자 (집사·7교구·찬양대원)

부족한 모습 그대로라도 하나님께 바치면 그러한 나를 통해서 영광받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과 손길을 통해 새로이 일꾼으로 세워주시사 새로운 결심을 하게 하시고 새 은혜를 주심이 감사하다.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지쳐 넘어질 때도 십자가의 의로 나를 죄 없다 하시니 더러운 옷과 같은 내 의를 자랑할 수 없어 조용히 고개 숙인다.

모든 좋은 것으로 채우사 궁핍함 없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권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 가난한 자를 돌볼 수 있는 마음, 환란 당한 자를 위로하는 마음, 인자한 말로 사람을 감화시킬 수 있는 권위(勸慰)의 능력, 평화와 화락을 만드는 화평케 하는 자의(peace maker)의 자질, 그리고 부지런히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을 한 번 더 구한다.

이 시대를 향도해 가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닌 서울교회의 권사가 되었으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여 말씀과 기도 생활에 충실하며 순종하며 복음을 위해서라면 오른 뺨을 치는 이에게 왼 뺨도 돌려댈 수 있는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해 본다.

무익한 종을 충성되이 여겨 새 직분을 허락하셨음에 1994년 맥추감사절을 더욱 의미깊게 여기며 가득한 감사로 맞이한다. 이제부터 새 마음으로 더 전진, 전진, 전진하련다.

그리 아니하실찌라도

- 감사란 평범한 사실 속에서 의미를 발견한 자의 반응 -

누구에게나 똑같이 내리는 빗방울을 어떤 이는 물의 낙하운동이라는 밋밋한 현상만으로 볼 것이나 어떤 이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의미를 믿음의 눈으로 발견해 낼 줄 안다. 감사의 신앙이란 이와 같이 산재해 있는 '사실'의 알갱이들 속에서 축복한 '의미'를 뽑아내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싶다.

현대를 사는 사람이 사실을 외면하며 살 수는 없지만 사실만으로도 살 수는 없다. 의미라는 이름의 축복한 샘물이 있어야 생명의 꽃을 피울 수 있다. 그런데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참다운 의미는 예수께 대한 신앙에서만 샘 솟을 수 있다. 복음서의 많은 기적에 대한 기록들이 사실을 언급하는 일에 치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보이지 않고 보여줄 수 없는 방법으로 일어난 때문은 아닐런지. 새롭고 참다운 의미를 평범한 사실 속에서 발견해 내는 눈 - 그것은 진리의 주님을 인해서만이 가능한 일일 것이다.

성숙한 신앙인의 척도는 고난을 당할 때 얼마나 기뻐하며 감사할 줄 아느냐에 있다고 한다. 성도가 보이는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고난 중에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사건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이다. 즉 환경과 사건이라는 '사실'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분을 의지함으로써 그 사실이 주는 '의미'를 바라보는 시선 ...

칠월 첫 주, 맥추감사절 아침에 하박국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으로 인한 절대적 감사'의 교훈을 얻는다.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그 의미를 찾은 성숙한 신앙인의 반응 - "그리 아니하실찌라도!"

“비록 무화가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찌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와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 3장 17 - 19절)

✧ 순례자 컬럼 ✧

소유와 삶

가진 것이 없이도 의미있게 인생을 살다간 사도들의 이야기는 감동적이다. 그들은 목적의식이 분명했고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심을 갖고 인생을 산 이들도. 보기에도 아름답고 고귀한 인생을 값지게 산 이들의 표본이다. 반면에 많은 것을 가지고도 불행한 인생을 살다간 헤롯대왕의 이야기는 우리를 슬프게 한다. 하는 일마다 죄요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이기적인 것이었으며 추구하는 것은 안개처럼 사라질 것들 뿐이었으니 그에게 평안과 기쁨이 있을 리 없고 더구나 감사와 보람은 찾을 수 없었다. 소유가 적다는 구실로 봉사할 기회를 외면해서도 안되지만 인생의 성패가 그 소유의 과다에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자.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예수님께 바쳐 오천 명을 먹게 한 소년의 이야기는 아직도 우리에게 커다란 교훈이 될 것이다.

선교지에서 온 감사와 편지

우리 삶의 근본이시며 우리 생활의 주인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더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곳에 온 지 6개월이란 시간을 보내고서야 이제 겨우 펜을 들게 됨을 용서해 주십시오. 파송식 때 인사드리며 눈물을 보였던 연약한 저에게 염려와 격려로 힘을 주신 목사님과 교회에 이제서야 인사를 드리게 됨은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어렵게만 느껴져 여러번 망설이다가 존경심과 감사한 마음을 그대로 전하려고 이렇게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처음 이곳에 와서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비슷하게 보이더니 이제는 정확히 파악되고 이곳의 문화를 서서히 익히면서 이곳 주민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친밀해져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님을 더 깊이 알게 가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곳 병원은 내과, 외과, 분만실, 수술실, 그리고 소아과로 나뉘어져 있는데 저는 소아과에 있습니다. 4월부터 우기가 시작되어 주변은 마치 밀집처럼 수목이 우거져 신비할 정도의 자연경관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만 이때만 되면 모기와 뱀이 많아져서 병원에는 말라리아 환자와 뱀에 물린 환자들이 많아집니다. 환자의 90%가 말라리아 환자로 말라리아균에 감염되면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 처음에는 질병의 무서움에 놀라곤 했고 열악한 의료 장비와 약품의 부족으로 인해 죽어가는 상황에서 결국 기도가, 기도만이 가장 절박한 의료임을 깨닫습니다. 저도 그렇고 이곳의 독일에서 오신 의사와 영국의 의사, 그리고 동역자들이 모두 말라리아로 계속 고생하고 있으나 힘들고 아플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져 감사하며 성장하는 서로의 믿음을 보며 격려를 받기도 합니다. 그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쫓을 수 없다는 로마서의 말씀을 조금 더 깊게 알게 되면서 감사하기만 합니다.

주말에는 시장과 인근의 마을, 두 곳의 교도소 등을 찾아 전도를 합니다. 그 중 한 교도소는 얼마 전 전도하러 가다가 길이 험해서 차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한명의 동역자가 사망하고 여럿이 다치는 바람에 한동안 방문을 중단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다시 그곳을 방문하여 성경공부를 하게 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말씀을 갈급해 하는 그들의 눈빛을 생각하면 그 무엇보다 복음전파의 일보다 우선할 수 없었기에 감사하면서 이 사역을 결정했습니다. 모든 결정 후에 밀려드는 형용할 길 없는 평안함과 감사! 여전히 불충하고 작은 걸림에도 넘어지곤 하는 약한 믿음을 아시면서도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고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열심히 전도해도 한 명의 결신자도 없을 때, 오히려 냉대하고 조소를 퍼부을 때, 최선을 다해 간호해도 어린 생명들이 스러져 갈 때, 혹은 부족한 우리 전도팀을 통해 증거된 말씀 앞에 수 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때, 죽어가던 어린 아이가 건강하게 병원문을 나서게 될 때, 그 모든 일들을 감사할 수 밖에 없으신 주님은 제 모든 것의 주님이시며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곳의 생경한 삶을 통해 너무도 많은 것을 배우지만 가장 감사한 깨달음은 부족하고 둔한 제 자신이 조금씩 조금씩 주님을 맞보아 알아가는 일입니다. 넘치리만큼 큰 이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음은 성도들의 끊임 없는 기도 덕택임을 알기에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최선을 다해 사는 것으로 감사한 마음을 대신합니다.

성전 이전과 여러 기관들의 활동들을 보내주신 교회 신문을 통해 접하면서 마음이 마냥 들뜨기만 했습니다. 목사님의 건강과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원하며 계속적인 기도로 힘껏 응원해 주시기를 다시금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평안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기도드립니다.

1994년 6월 1일

우간다에서 선교사 임정미 드림

모스크바에 김치(KIMCHI) 지부개설

제5차 김치세미나 동문들이 주축 이뤄

기독교 신문발행, 찬송가 출판, 새벽기도회 확산 등

제 5차 김치 신학세미나에 참여했던 러시아 목회자들은 귀국 후 「모스크바 영성교육 김치센터」를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 왔다.

지난 6월 15일 모스크바에서 모임을 가진 그들은 먼저 김치세미나를 개최하고 초청해 주신 서울장로교회 성도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고, 높은 신학과 깊은 신앙을 수준 높게 강의하고 이해시켜 주신 이종운 목사와 여러 강사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했다.

배운 바대로 러시아 교회를 재건하려면 먼저 훈련 받은 김치 동문들이 앞장서서 일해야 할 것임에 동의하고 이들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를 결의 했다.

1. 본 센터는 초교파적인 기구로 한다.
2. 본 센터는 교회 영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최우선의 전략으로 새벽기도회를 채택하고 이를 전 러시아에 확산키로 한다. (모스크바 침례교회에서 이미 15명이 새벽기도회를 시작하였고 그 경과보고도 있었음)
3. 『다락방 운동』을 조직하여 성도들의 교제와 성경공부를 추진케 한다.
4. 본 센터는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둔다.
 - ① 출판위원회 - 담당 / 예쁘신 목사
 - ② 자선위원회 - 담당 / 아브라스킨 목사
 - ③ 교육위원회 - 담당 / 크반 목사
 - ④ 아동위원회 - 담당 / 볼로호프 목사
5. 러시아 개신교회 지도자들을 돕기 위해 신문을 제작한다. (발행부수 1만 부 예정)

6. 러시아 개신교회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찬송가를 출판한다.

현재는 찬송가가 없다. 곤차렌코 교수와 울로브 장로, 그리고 크랍츠크 목사를 위원으로 선정하고 가장 아름답고 성경적인 찬송을 수집하여 출판한다.

7. 새벽기도회는 우리들이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최고 선물이다.

그러나 이를 시행하려면 흠어진 성도들이 새벽에 모여야 한다. 대중교통수단이 용이하지 않은 상태여서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복을 누릴 수가 없다. 흥해로 알고 함께 기도하자.

8. 이종운 목사를 모스크바에 초청하여 김치세미나의 연장교육을 요청한다.

- ① 복음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전도에 관심있는 모든 러시아 목사들을 세미나에 초청한다.
- ② 특히 신학 교육에 종사하는 교수, 교회학교 교사,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을 참여토록 한다.
- ③ 「브라고 넨스닉크 크리스찬 출판사」와 「모스크바 크리스찬 자선단체」를 방문토록 한다.

아프리카 말라위에도 개척교회 세우기로

우리 교회 당회는 1993년도에 개최했던 제 4차 김치세미나에 참가자 캄와나(I. B. Kamwana) 목사의 요청에 따라 말라위에 두 개의 교회당을 짓고 이를 지원키로 했다. (사진은 말라위 교회의 예배광경)





'94 여름 전교인 가족수련회

7월25일(월) - 28일(목), 삼척산업대학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가정공동체” 주제로

올해도 삼척산업대학에서 전교인 여름 수련회를 개최한다. 이번 수련회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와 가정 공동체”로 전교인이 한 가족되어 교제를 나눔과 동시에 사회의 질서가 문란하고 패륜아가 발생하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근본 원인을 진단해 보고 신앙적인 가정을 이룩하는 것으로부터 치유책을 찾고자 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서울교회 전가쪽 뿐 아니라 전도대상자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이다. '94 여름 전교인 가족수련회 참가신청은 4일(월)부터 24일(주일)까지 사무국에서 접수한다.

아이디어를 모읍니다.

- 예배당 정면 장식 -

예배당 정면의 유리 전면을 장식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모집합니다. 교회의 이미지를 잘 살리고 복음 전파에 유익이 될 수 있으며 아름답고도 시공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은 사무국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를 모읍니다.

- 그리스도인답게 더위를 이기는 법 -

「순례자」 편집실에서는 보다 많은 분들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특별히 장마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이 여름철에 그리스도인다운 바람직한 여름나기를 지면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는 코너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논단, 수필, 제언, 풍토 등 어떤 형식의 글도 환영합니다. 1편의 원고는 200자 원고지 6장 내외가 적당합니다. 원고 마감은 7월 13일까지이며 채택된 원고는 7월 17일에 발행하는 「순례자」 제 130호에 실게 될 것입니다.

원고 제출 및 문의는 「순례자」 편집을 지도하시는 장용휘 목사님 (교회 ☎ 517-7655)이나 「순례자」 편집실(팩스/516-9641)로 하시면 됩니다.

서울주간기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1. 수고한 만큼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허락하옵소서.
3. 농촌의 교회들에 새 힘을 주옵소서.
4. 전교인 가족수련회를 은혜 중에 준비하게 하소서.
5. 지구촌 곳곳의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게 하소서.

교육관에서 철수

교회학교 집회장소와 시간 일부 변경

오는 17일 주일부터

현재 사용하는 교육관에서 완전 철수하게 된다. 따라서 오는 17일(주일)부터 일부 교회학교의 집회 장소와 시간이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부 서	장 소		시 간	
	기존	변경	기존	변경
중 등 부	교육관 5층	본당 201호	오전 11시	오전 9시 - 10시 50분
고 등 부	교육관 6층	본당 401호	오전 11시	오전 11시 - 12시 30분
청 년 부	별관 1층	본당 201호	오후 1시	오후 2시 - 4시
사 랑 부	교육관 5층	별관 1층	오후 2시	오후 2시 - 4시

주일에는 같은 장소를 여러 부서가 함께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으므로 시장을 엄수하고 장소 사용 전과 후에 정리 정돈을 잘 해서 집회에 지장이 없도록 각 부서간의 협력과 양보가 있어야 할 것이다.

계속되는 70인전도단 활동

◆ 축호전도팀

교회 인근의 집들을 가가호호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출석하도록 권유하며 인도한다.

1조는 수요일 1부 예배 후에, 2조와 3조는 주일 2부 예배 후에, 4조는 평일에 전도하고 있다.

◆ 병원전도팀

육신과 영혼이 모두 지쳐있는 환자들을 찾아가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

1조는 주일 찬양예배 후에 강남 시립병원으로, 2조는 수요일 1부예배 후에 안세병원으로, 3조는 평일 중에 하루를 택하여 테헤란 병원으로 달려간다.

◆ 터미널 전도팀

고속버스터미널과 청량리역 부근의 직업여성들에게 전도를 담당하고 있다. 1조는 주일 찬양예배 후, 2조는 수요일 오후에 활동하고 있으며 특별히 3조는 금요일 야기도회 후 10시 30분부터 새벽 1시까지 유흥가를 배회하는 사람들에게 전도지와 함께 간단한 음료나 사탕을 나누어 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경교실」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9시 30분
대전 극동방송(HLAI FM 93.3MHz) 「늘푸른 초장」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6시 50분
아세아방송(HLAX 1566KHz) 「주일설교」 매 주일 오전 8시 ~ 8시 30분
「주일설교 재방송」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10분 ~ 4시 50분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 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 교회위치

